

사람도, 자연도
더 없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Fertilizer & Global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냄새없는 완숙 퇴비”

그린애 조경용 퇴비 20kg

- 철저한 부숙·후숙 과정을 거친 완숙퇴비로서, 냄새와 가스가 전혀 없어 공원 등 조경 녹지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 토양구조를 개선하고, 식물 생육을 촉진하는 유용 미생물을 다량 함유
- 양질의 유기물인 코코피트와 양이온치환용량이 높은 제오라이트를 함유하여 보수력·배수성·보비력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효과가 탁월
- 천연 부엽토를 다량 함유하여 수목에 가장 친화적인 유기물을 공급
- 최고급 발근제를 다량 함유하여 발근 촉진 및 조기 착근을 유도



멀티그린테크 1L

- 빠른 세포조직 형성으로 뿌리발근에 효과적
- 해조류 추출물의 천연 생리활성물질과 미네랄 등 다량 함유로 식물 성장 촉진에 탁월



루트테크 1L

- 고품질의 풀빅산과 켈프의 함유량을 높여 발근 효과가 탁월하며 진뿌리 생성 조직재생 유도
- 시들음, 고온·저온 장애 조기회복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릉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5. 여름호 Vol.187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삼성물산 협력업체

대우임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공예품제작용 국산특수목재, 괴목공예가구 전시·판매

대표 구본찬 /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실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 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화분받침대(4구, 6구, 9구, 20구)

. 용도: 4구-합본3.0, 시각등 다용도
6구-시각합본140, 원형등 다용도
9구-시각합본110, 원형등 다용도
20구-시각합본90



◆ 시설양묘용기

. 4구, 6구, 12구, 15구, 20구, 24구,
28구, 35구, 40구, 88구, 176구
. 국내 최대 규격의 용기 보유



◆ 삼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 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삼목용



◆ 슬릿(slit)화분(3.0ℓ, 4.5ℓ, 6.5ℓ)

. 합본3.0, 4구-립, 합본6.5
. 용도 : 뿌리생육에 적합한 슬릿(slit) 화분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φ 335xH305 / φ 430xH350 / 470xH345
φ 520xH375 / φ 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화분 4.5, 7, 10, 12, 19, 25, 140

. 크기 : 4.5 ℓ, 7.0 ℓ, 10. ℓ, 12.0 ℓ,
19 ℓ, 25.0 ℓ, 140 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저면관수베이스600, 1000

. 베이스600 : 1200 x 600 x 75
. 베이스1000 : 1500 x 1000 x 70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외경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φ200/4.580	화분4.5	φ211xφ200xH200	4.5 ℓ	색상5종
4구(일체형)	390*390*170	φ130/1.560	화분6.5 (slit화분)	φ246xφ230xH200	6.4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φ120/1.350	화분7	φ257xφ200xH200	7.0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φ109/0.863	화분12	φ300xφ270xH250	12.0 ℓ	검정색
12구	450x340x170	φ102/1.050	화분25	φ385xφ358xH300	25.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φ75/0.510	화분140	φ830xφ750xH450	140.0 ℓ	
24구(일체형)	420x280x140	φ64/0.310	조경포트 20형	φ335xφ250xH300	19.0 ℓ	(slit화분)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35형	φ427xφ335xH350	35.0 ℓ	(slit화분)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45형	φ470xφ400xH345	46.0 ℓ	(slit화분)
88구	440x320x65	φ36/0.043	조경포트 65형	φ520xφ450xH375	65.0 ℓ	(slit화분)
176구	535x370x60	30*30/0.036	조경포트 95형	φ589xφ507xH427	95.0 ℓ	(slit화분)
삼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삼목상자160	520x370x160	삼목상자	저면관수베이스2종	*베이스600: 1200*600*75 *베이스1000:1500*1000*70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 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볼보의 새로운 미래 -

ECR25 **ELECTRIC**

www.volvoce.co.kr



캡 타입

캐노피 타입

대버킷,
협폭버킷
기본 제공

• 운전중량 : 2,660kg
• 버킷용량(표준) : 0.11m³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Volvo Electric Excavator 볼보 전기 소형 굴착기 특별가 렌탈 서비스

이제, 신제품 전기 배터리 소형굴착기 ECR25를
볼보 렌탈 서비스로 부담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ECR25 ELECTRIC 캐노피타입 - 장기, 단기 렌탈 서비스

구분		기간별 렌탈료(특판가)		
장기 렌탈	기간	24개월	36개월	60개월
	장비만 렌탈시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0만원	140만원	120만원

*상기 장기 렌탈 서비스는 렌탈 만료시 장비 인수 조건이며, 인수시 잔금은 조건 별로 상이함.

구분		기간별 렌탈료			
단기 렌탈	기간	1일	7일	15일	30일
	장비만 렌탈시	13만원	80만원	140만원	200만원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만원	100만원	160만원	240만원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이 가능한 경제적인 단기 렌탈 서비스"

**본 렌탈 서비스는 장비 출고에 따른 재고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제 입고시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 후, 렌탈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혜택 1.
장비 탁송 및 반납시 운송비 전액 지원
(제주도 및 도서 지역 제외)

혜택 2.
1개월 이상 렌탈 서비스이용 전고객
볼보 오리지널 ECR25 Elec 모형 증정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친환경 ELECTRIC 솔루선 기술 적용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ELECTRIC 배터리 충전 타입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컴팩트한 ELECTRIC 구동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시간 절감. 점심 시간 또는
운휴 시점 고속 충전 가능.



볼보 일렉트릭 머신 관리 앱 EMMA
볼보가 제공하는 Electric Machine
Management App은 스마트폰
일상 장비관리가 가능합니다.

렌탈·구매
전문 상담

볼보 전기굴착기 지원팀
070-5088-3892

V O L V O

MARU
P L A N T S
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재배가 달라지면 화분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럽1위 컨테이너 화분 코스모포트



★ 고객들의 다양한 후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화훼종묘(주), 대림원예종묘(주), 서광원예종묘(주), 성진원예자재, 수성조경농원, 화분프라자, 상부농원, 농업회사법인바움랜드(주), 오랑주리, 그린컴퍼니, 남사야생화, 가든팜, 상희화분, 금강원예종묘, 바른원예종묘, 화수조경, 강릉미림꽃농장, 세화화분, 서울장미원, 정원사의오랑주리, 금산묘목나라, 농업회사법인(주)정다운원예묘목농원, 대성식물, 농업회사법인, 영풍원예, 백두화분, 호남조경수유통, 영광야생화, 대림원예가든센터, 포항목재, 학구식물원, 목하원예조경, 천안칼라관목(주), 복남이네야생화, 예원조경건설

제품 정보



판매/비즈니스 문의 070-8802-3058

컨테이너 재배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써클링 방지, 공기 순환, 배수성 탁월, UV차단, 튼튼한 내구성



에어포트 전문 농장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농장을 시청해보세요!



주문·상담 문의

☎ 063-536-1117

(주)지에스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신길 3

Contents

2025. 여름호 Vol.187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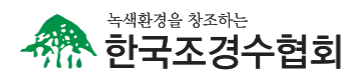


06	협회소식		
16	지회소식		
18	회원사탐방	경기지회 「조경마루」	• 박정기
28	조경수 유지관리	나무를 알면, 숲이 보인다 2장	• 정규중
36	새로운 조경수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4편	• 김종근
48	조경수 기고	정선 봉양리 뽕나무	• 이용직
54	역사 속 나무 이야기	'버들의 왕' 왕버들과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버들 아가씨 이야기	• 신현배
58	노거수 산책	제주 산천단 곰솔군	• 박정기
64	회원사 동정		
65	회비납부 안내		

조경마루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촌로 38-9

발행인 겸 편집인 유연송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5년 6월 20일
(통권 제187호 여름호)

발행 및 편집주간 여운식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III)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NEWS

2025년 지회장회의 개최

- 01. 일 시 2025년 3월 20일(목) 11:00 ~ 12:15
-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 03. 참 석 15명
- 04. 내 용 -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공지사항 안내
- 제10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및 박람회 개최 검토 및 기타토의



NEWS

2025년 부회장회의 개최

- 01. 일 시 2025년 4월 10일(목) 11:00 ~ 12: 30
-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 03. 참 석 10명(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 04. 내 용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기타토의



NEWS

[산림청] 산불피해 임업인과의 간담회

- 01. 일 시 2025년 5월 7일(수) 10:30 ~ 12:00
- 02. 장 소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대회의실
- 03. 참석자 산림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조경수협회장 유연송 등 30명 내외
- 04. 내 용 - 울산·경남·경북 산불 피해지 복구대책 발표
- 임업인 협단체 및 산불피해 임업인 피해 현황 및 건의



NEWS

2025년 고문·감사 회의 개최

- 01. 일 시 2025년 5월 8일(목) 11:00
- 02. 장 소 더함뜰(대전)
- 03. 참석자 8명(고문, 회장, 감사)
- 04. 내 용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기타토의



NEWS

2025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 조성관리사 보수교육

01. 일시 및 장소

- 전체교육

- 2025년 5월 15일(목) : KT인재개발원
- 2025년 6월 19일(목) : (주)옥담농장(곡성)

- 경상권

- 2025년 5월 21일(수) : 봉수조경 농장(창녕), 무궁화 카페(창녕)
- 2025년 5월 22일(목) : 엄마의 정원(밀양), 만년교정원(창녕)
- 2025년 5월 29일(목) : 미소조경 농장(경주)

- 충북세종권

- 2025년 6월 4일(수) : 공간조경 농장(청주)
- 2025년 6월 11일(수) : 세종식물원(세종)
- 2025년 6월 12일(목) : 나무지기숲 농장(세종), 수복나무시장 농장(세종)

02. 참석자 조경수 재배교육 신청자



무궁화카페(창녕) 조경수 번식(종자, 삽목)



엄마의 정원(밀양) 노지 컨테이너, 굴취, 분뜨기



만년교 정원(창녕) 조경수를 활용한 소득창출

NEWS

2025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 조성관리사 보수교육



미소조경(경주) 조경수 관리(노지, 컨테이너)



세종식물원(세종) 조경수 생산(노지컨테이너, 굴취, 분뜨기)



공간조경(청주) 조경수를 활용한 소득창출



나무지기숲 농장(세종) 조경수 관리(노지)

NEWS

2025년 조경수 재배기술교육 및
조경수 조성관리사 보수교육



수북나무시장 농장(세종) 조경수 관리(컨테이너)



(주)옥담농장(곡성) 컨테이너, 노지 재배기술(관수시설 등)

NEWS

2025 우리 임산물 숲푸드 대축제
‘모여포레·먹어포레·즐거포레’

- 01. 일 시 2025년 5월 16일(금)~17일(토)
- 02. 장 소 광화문광장
- 03. 참석자 산림청장, 한국조경수협회장 유연송, 부회장 송병수, 경기지회장 김재용, 경기지회 사무국장 이학중, 조경마루 대표 황수영 등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 01. 일 시 2025년 5월 9일(금) ~ 5월 13일(화)
- 02. 장 소 전주 월드컵광장
- 03. 참석자 한국조경수협회 김규열 고문, 김경수 부회장, 이근형 감사, 광주·전남서부지회 이병관 지회장, 류재선 사무국장 등
- 04. 내 용 화수조경(김경수 대표), (주)옥담(이근형 대표)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전시 및 판매



NEWS

**경기지회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대통령상,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01. 일 시 2025년 5월 10일(토)
- 02. 장 소 일산 호수공원
- 03. 규 모 국내·외 25개국 200여개 기관·단체·협회·업체
- 04. 참석자 경기지회 회원 외
- 05. 내 용 - 대통령상 수상 : (주)일진글로벌 조병상 이사 (행사 테마 작품 조성)
-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조경마루(주) 황수영 이사 (올리브 나무 전시)





신뢰와 품질로 변화하는 조경시장의 리더가 되다 경기지회 「조경마루」

글·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정기



조경마루는 우리 협회 경기지회 회원사이다. 관목 및 관엽식물 재배시설이 산재한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에 자리 잡은 농업회사법인이며,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400m 거리에 있고 서울과 멀지 않아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가진다. 조경마루는 빠르게 변화하는 조경시장에서 신뢰와 품질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며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식물 전문 수입대행업(KPP, 한국식물특허)으로 시작하여 조경수, 정원수, 숙근초화류, 실내식물, 용기와 용토 등 조경 식물과 자재를 생산하고 수입하고 유통하는 선두기업이다.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식물 도매 및 자재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데, 유행을 선도하는 초입종 수목과 구근류, 그리고 장미 부분의 매출이 많다.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으로 전국 100여 곳의 조경식물 유통업체, 인터넷판매업체, 종묘사, 조경수·초화류 생산자, 소매판매자와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조경수유통 업계에서 신인도를 높여왔다.



황수영대표는 1985년생 청년 조정인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조경 산업의 미래를 앞당기는 CEO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긴다. 우리 업계의 노화(老化)를 걱정하는 이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황대표의 고민은 짧았고 실행은 빨랐다. 전남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했고 조경식물 유통회사에서 해외 수출입 노하우를 쌓은 다음 자영의 길을 걸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 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구조를 개선하였고 신상품 발굴·보급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시장을 넓혔다. 유튜브를 시작하자 접속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명도 쑥쑥, 매출은 탄력을 받았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 각종 수상과 인증을 통해 전문

가로 인정

받았다. 청출어람이다. 황 대표는 신뢰를 중시한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는 경영마인드로 두터운 거래망을 구축했다. 카탈로그에 없는 수종도 고객의 요구를 읽어 맞춤형으로 품종을 제안하는 등 고객만족에 언제나 진심이다. 농업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고,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농촌진흥청장이 표창한 황수영 대표는 2023년 우리 협회에 입회하여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조경마루는 2021년 지금의 자리에서 스타트업 했다. 행정과 세무에서 유리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확장성을 갖는 규모로 연착륙하여 고공행진 한다. 통합 재배·관리·판매하고 원스톱 쇼핑이 되는 700평 연동 온실 2개와 재배포지, 적응과 전시 노지까지 총면적 4,000평이다. 직원 6명은 매출의 규모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만 황 대표가 1인 3역을 하여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동선이 짧게 설계된 공간구조에 스마트팜 설비를 갖춘 온실, 장비자재의 기계화, 그리고 수체(樹體)가 작고 회전율 높은 상품구색은 그대로 효율성이다.





조경마루 포지는 경사도 제로, 평활하다. 조경식물의 수고(樹高) 또는 초장(草長)은 길고 그 폭은 짧다. 단위 면적당 수량을 늘리고 수고를 높이는 생애주기(年生)이기 때문이다. 재배, 회복, 적응, 전시, 판매하는 노지는 용수관로가 매설되어 스프링클러 관수한다. 최신 트렌드를 읽고 형태, 색채, 촉감, 향기를 기준으로 입식하여 일조와 바람에 노출시킨 상품은 판매 후 클레임이 걸리지 않는다.



기업 간 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로 표현되는 b2b(B-to-B)는 조경식물 유통부문에 가능함을 조경마루는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탄력을 받아 가속페달을 밟을 정도다. 시장의 요구를 읽고 때론 시장을 리드하는 상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스경관이 핫플이 되는 것처럼 양감진 열에 대량판매가 가능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조경마루는 도매 위주로 객단가 높다. 그렇다고 소매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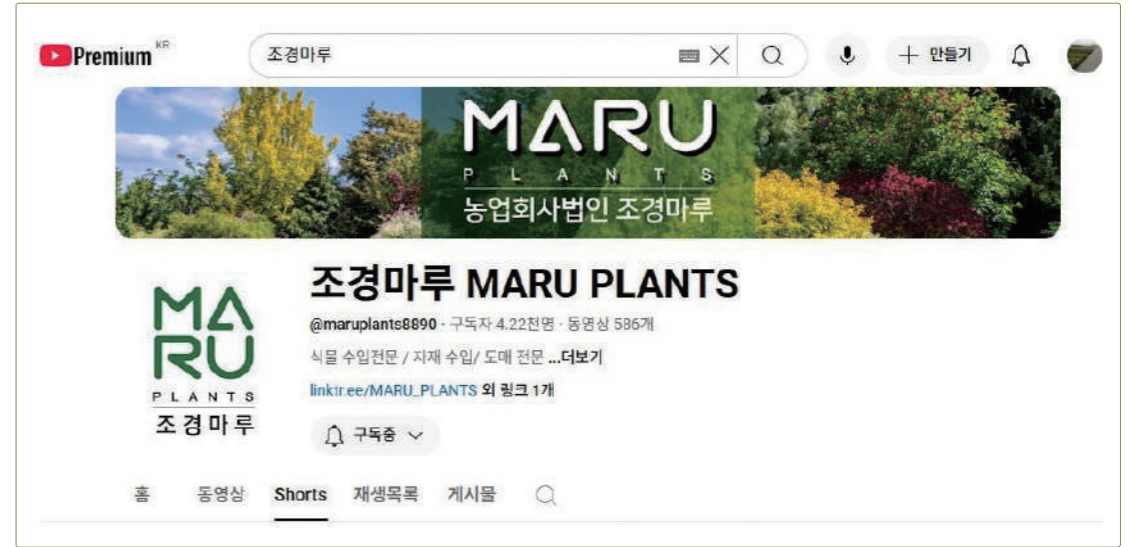
조경업역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재배 시대는 기술이지만 유통시대는 기술에 정보까지다. 황대표는 기술력과 정보력 둘 다 된다. 타고난 활동력에 기민하게 움직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발굴하고 공급하며 끊임없이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한다.



최대 1,500리터까지 대형 용기와 올리브 특수목이 심긴 최고급 용기



정원산업 박람회에 출품한 올리브와 조경식물 신상품 판매 부스



황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조경마루> 시작 페이지

✓ 농업은 배웠지만 사업은 못 배웠다?

조경수 재배 기술이 뛰어나도 경제 감각과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필패(必敗), 황 대표는 농업에 머물지 않으려 늘 노력한다.

✓ 나무는 판매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조경시장에도 손절매가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헐값에 팔지 않으면 평생 내나무, 나무를 입식할 때 판매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인터넷에 없으면 세상에 없다.

대면거래 또는 중간상인 거래로는 한계가 뚜렷하여 황 대표는 처음부터 온라인 판매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황 대표 유튜브 콘텐츠



✓ 조경업역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

조경의 노화는 위기가 아니라고 믿는 황 대표는 조경수 구매 연령대가 낮아지는 지금은 오히려 젊은이한테 기회라고 말한다. 용기채배에다 유통 중심으로 개편되는 업역의 흐름을 볼 때 젊은 감각이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 손을 펴야 질 수 있다.

지금은 시대 변화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황 대표는 오랜 관행을 혁파한 조경인이다. 그래서 남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내 손에 든 것을 털고 새로운 것을 잡는 유연한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나무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

조경 업역은 조경수 종 다양성 만큼이나 넓고 할 일은 많다.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가 뜨고 진다. 내 사정에 맞고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 품종 다양화와 품질 향상은 상생할 때 가능하다.

품종 다양성 확보와 우량 조경수 생산과 유통은 거래처와 협업하여 시너지를 내어야 가능하다. 황 대표는 이미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 **조경마루 주력상품** | 국수나무, 단풍나무 문라이즈, 떡갈잎수국, 러시아세이지, 만병초, 매자나무, 목수국, 무늬유카, 미국수국, 올리브나무, 왜성남천, 은칭가문비, 작약, 조팝나무, 서양측백, 은테사철, 자엽백일홍 등. 🌿



농업회사 법인 조경마루 | Maru Plants

(17711)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촌로 38-9 (동천리 965)

이메일 : info@koreaplantparent.com

전화 : 070-8802-3058 전송 : 031-624-4977

휴대전화 : 010-9377-3058(황수영)

木 나무를 알면, 숲이 보인다. 林

제2장 햇볕드는 자리



정규중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① 나무들의 햇볕 드는 자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일이 고될 때 발자국소리도 죽이고 숲을 찾는다. 숲속의 적막감이 웬지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한창이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금 나무는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은 싹틀 준비를 한다. 이때를 놓칠세라 진달래, 바람꽃, 제비꽃들이 잎이 트기 전에 아니 햇볕이 드는 자리를 빼앗기기 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는다. 얼마 뒤 숲은 햇볕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광합성에 적합한 햇빛은 나무가 모두 가져가고 지면에 닿는 버려진 햇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숲속의 봄꽃은 그래서 귀하다.

그렇게 완연한 봄이 오고 잎이 피면 이제 나무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가 더 빨리 자라 햇볕을 선점하려는 것이리라. 나무의 성장은 결국 아래 묵은 가지에 닿는 햇볕을 가리게 되고 이제 그 가지는 버려지게 된다. 나뭇잎에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생산광합성보다 소비호흡이 많아져 나무 생장에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경쟁하는 나무와는 달리 그들의 높이를 이용하여 쉽게 햇볕 드는 자리를 탐하는 덩굴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칩도 그러하고 가시박도 그러하다. 높이의 경쟁으로 승부를 내는 시대는 끝이 나는 듯하다. 변하고 지능화된 삶의 방법으로 생존하는 식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햇볕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단풍나무, 고로쇠, 노간주나무들이 높은 나무 그늘아래 등장하여 천천히 성장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생태적 지위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잠시의 휴전일 뿐이다. 언젠가 오래된 나무는 약해져 쓰러지고 공간을 내어주게 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토양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씨앗들이 발아하게 되나, 이웃한 나무들은 가지고 있던 가지를 숲 틈으로 뺏어 씨앗들이 자라는 것을 막고 침입하는 많은 세력들과 경쟁하게 된다.

오랫동안 흙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씨앗은 기회를 놓칠세라 연약한 줄기를 쓰러지는 것도 무릅쓰고 높이 높이 자라게 된다. 광합성이 문제가 아니다. 숲틈을 찰나의 순간을 기회로 그리고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퍼붓는다.

② 나무의 생김새 따라가기

4월의 봄, 연두빛의 숲속은 요란하기도 하다. 나무가 잎과 꽃을 피우고 가지가 자란다. 이에 맞추어 곤충이 잠에서 깨어나 스멀스멀 기어 다니며 새순을 갈아먹는 단백질에벌레의 등장에 기분 좋은 새들은 겨울 동안 굶주린 배를 채워 신이나 저마다 지저귀며 짹짹기를 준비한다. 그 요란함의 시작도 나무잎에 분명하다. 만물의 생산자가 활동을 시작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서 날뛰기 시작한다. 그렇다. 봄은 나무로부터 시작된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지만 나무는 스스로를 내어주며 생태계의 바퀴를 돌린다. 그러나 작년 그 더운 여름의 치열한 전투를 생각하면 애처롭기도 하다.

줄기가 점점 길어지고 겨울옷을 벗은 잎은 뽀얀 연두 빛 속살을 내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모습은 매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은가. 나무는 왜 이런 모습일까.

나무는 광합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한시라도 호흡량이 많아지면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다. 햇볕 드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투쟁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 햇빛을 가장 잘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 우선 다른 놈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높이 올라갈수록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니 튼튼한 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방으로 잎을 뻗어 햇빛을 최대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충분히 획득하기 위해 뿌리도 사방으로 뻗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자답하다 보면 충분히 나무의 생김새를 이해하게 된다.

광합성을 하기 위한 물과 양분을 뿌리에서 광합성을 하는 잎은 가지 끝에서 하는 것이라 이들이 충분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의 지상과 지하 비율 TOP/ROOT율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나무의 생장은 광합성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탄소의 합성으로 인해 자라는 것이다. 나무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 있는 가계부를 잘 쓰고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공기 중의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나무에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의 자라는 것을 탄소의 저장이며 지구온난화를 막는 영웅적 모습이라고 말한다.

③ 온몸이 옥신옥신하다.

앞에서 언급한 나무의 모습은 위로 자라면서 넓게 퍼져 햇빛을 수확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호르몬이다.

나무는 여러 호르몬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수목의 모양과 관계된 호르몬이 옥신이다. 옥신은 나무의 중앙에 위치한 성장점에서 분비되어 옆에 있는 성장점을 억제한다. 그래서 중앙의 성장점은 많이 자라게 되고 옆에 있는 성장점은 조금 자라게 된다. 이것이 나무가 비만이 되지 않고 키다리가 되는 이유다. 우리는 중학교 때 갑자기 키가 커지면서 무릎이 옥신옥신하지 한다는 억지스런 기억으로 옥신은 그렇게 키를 키우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옥신의 분비가 많은 나무는 길쭉하게 자라며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옥신의 분비가 적어지면 옆으로 자라는 통통한 모습을 하게 된다.

어린나무를 보면 길쭉한 모양이다가 오래된 노거수를 보았을 때는 통통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처럼 나이가 들면 감소되는 호르몬 때문이다.

고대화석나무라고 하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많이 사용된다. 그도 그럴것이 은행나무는 고생대 말기인 페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나무성장호르몬의 영향

그들은 생장이 빠르다. 전선으로 인해, 간판을 가르다는 이유로 잘려나가는 은행나무들은 다시 잘려진 가지 끝 가까이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내어 하늘로 향한다. 생장도 빠르거나와 옆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틀어 하늘로 향하는 것이다.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 물론 은행나무의 방어물질이긴 하지만 말이다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지 않을까 싶다.

④ 나무의 냉정함에 무너졌다.

나무는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항상 그곳에 있다. 나는 어딜 가나 나무 곁에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 속세의 시름을 달래는 곳으로 묵직한 나무의 위로를 받았다. 설악산 계곡의 굴참나무가 그러했고, 캠퍼스의 계수나무도 그랬다.

헌데, 타인에게는 관대한 나무도, 알면 알수록 스스로에게는 냉정하다는 사실은 나만의 착각일까. 나무는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 광합성으로 성장하는 나무는 광합성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나무는 성장하면서 그늘에 가려지는 아래쪽 나뭇잎과 가지를 없애버리고,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은 어떤 잎도 가만두지 않는다. 광합성을 하는 잎과랑은 여름철에는 만들어내는 유기물이 많아 나무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남은 유기물은 뿌리에 저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는 잎은 만들어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진다. 살아 있으니 나무는 이들에게 물과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한 여름철 많은 노고로 식량을 저장해 놓은 것에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빛이 약해지는 가을과 겨울은 포도당의 생산보다 소비가 많다하여 잎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회수하고 없애버린다. 그것이 낙엽이다. 다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봄날을 기다리며 나무는 가차 없이 없애버린다. 뿌리도 마찬가지이다.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세근은 살아 있다. 그들도 겨울이 되면 별달리 할 일이 없어 놀고먹는다. 그래서 그들은 단명하는 운명이다. 그리고 잎과 함께 다시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⑤ 당근과 채찍; 같으면서도 다른 꽃과 잎

달콤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라일락꽃은 여름을 맞는 언저리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선사한다. 코끝에 전해진 꽃 향에 취해 이제는 제대로 된 맛도 볼 겸 잎도 살짝 깨물어 본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입을 헝구어 내야 할 정도로 쓰다. 내 옆에 있는 지금의 반려자에게도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어보고 싶어 처음 만나 했던 짓궂은 행동이었다.

나무의 꽃과 잎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잎은 최대한 광합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꽃은 수분매개자POLLINATOR인 곤충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파리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무는 항상 이들POLLINATOR의 취향을 저격한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향기롭다’라고 하는 휘발성물질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잎은 어떤가. 잎의 적은 곤충이다. 특히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식욕은 대단하다. 곤충의 애벌레 시기는 전 생애의 섭취량의 80% 이상 폭식으로 성장하며, 성충은 번식을 위한 시기이다.

애벌레는 무섭게 잎을 갈아먹는다. 잎은 나무에 있어서 곤충과 공존하기 어려운 전투의 장이다. 곤충을 멀리하여야 하며, 또한 해를 끼치는 균류들도 멀리하여야 한다. 잎은 독해진다. 잎은 테르펜TERPENE이라는 방어물질을 만들어내고 공격수들을 멀리한다. 또한 방어막이 뚫려 공격을 당하면 과민성반응을 보여 잎이 뒤틀리기도 하고 공격받은 잎 주변의 세포가 공동자살SUBERIZATION을 하는가 하면 독POLYPHENOL을 내뿜기까지 한다.

꽃은 필 때, 고유의 짙은 향을 발산한다. 꽃의 향기는 곤충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물질이다. 꽃가루받이의 준비가 된 꽃은 자신이 원하는 곤충을 선택하기 위해 고유의 향기를 내는 전략 암호 물질로 방출한다. 발산되는 향기는 강하고 동시적이기 때문에 곤충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꽃의 향기는 꽃이 필 때 발산하므로 그때가 제일 강하다. 잎이 변해서 꽃이 되었다는 업화설을 믿지 못할 정도로 잎과 꽃의 향은 다르다.



⑥ 자손번성을 위한 노고

오랜 지구의 역사에서 성의 분화는 왜 생겼을까? 성의 분화를 따라가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유전자DNA에 다다른다. 새로운 형질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교배가 필요하며 유전자의 교배는 결국 서로 다른 개체의 수정에 의한 것이다. 그럼 왜 생명체는 교배를 통해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였을까.

나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나무도 유성생식을 한다.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균과 같이 이분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개체와 유전자를 섞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균과 같이 쉽게 둘로 쪼개어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작업은 얼핏 보면 쉬워 보인다. 그 쉬운 과정을 버리고 왜 암, 수를 분리하여 확률도 낮은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포자식물들은 물이 없으면 수정이 어렵고, 겉씨식물도 바람이 없으면 수정이 어렵다. 더군다나 나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속씨식물도 곤충이 없으면 다른 개체와의 수정이 쉽지는 않다. 도대체 이 어려운 작업을 왜 택한 것일까. 바로 숙주와 기생생물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아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기생생물들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개체가 아닌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야 했다.

기생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은 동일한 숙주생물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유전자가 다른 숙주생물이 나타날 경우, 기생생물도 동일한 공격으로는 쉽게 공략하지 못한다. 식물이 번식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암수딴그루로 진화한 것은 다양한 유전자를 얻어 질병이나 기상재해로부터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⑦ 젊다는 것이 경쟁이다.

우리 동네 뒷산은 참나무골이라고 할 정도로 참나무가 많다.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수종도 다양하다. 옛날에는 이곳이 그 좋다는 참나무숲을 만들어 팔았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가끔 도토리목을 만들어 손주들에게 맛 보일려는 할머니들 손에 한 움큼 쥐어져 다람쥐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해는 도토리가 말도 안되게 열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미 할머니들의 손에 타기 전에 다람쥐가 씹졌을까? 그 다음해에는 넘쳐난다. 괜히 다람쥐들에게 고맙다.

어린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당연히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식생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된다. 나무는 생식생장을 하게 되는 순간 영양생장을 멈추게 되는데 생식생장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릴 때 이러한 에너지를 모두 생식생장에 사용한다면 성장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성장이 곧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니 유형기를 두어 영양생장에만 에너지를 퍼붓는다. 그래야 높이 자라나 햇볕 드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나무는 20년 동안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사람으로 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이다.

은행나무가 갑지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유형기가 끝나고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소나무는 5년, 잣나무는 20년, 참나무도 20년 정도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는 맺는 작업은 사람이 임신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래서 열매를 한번 맺으면 나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4편
Genus *Hibiscus*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무궁화 '클라라'

Hibiscus syriacus 'Clare'

대한민국 심경구 박사가 2013년 무궁화 '진선'에 무궁화 '삼천리'를 교배하여 2016년 선발된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둥근 나팔 모양으로 피는 하얀색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의 지름은 약 10cm 내외로 꽃 중심부는 단심 무늬가 없는 순백색을 띤다. 꽃잎은 서로 약간 겹치며 활짝 벌어져 핀다. 잎은 약간 넓은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약 6cm, 폭은 약 4cm 정도이다. 잎 가장자리는 얇게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가지는 약간 아래로 처지면서 자란다. 순수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나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정원에 식재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Hibiscus syriacus 'Clare'
무궁화 '클라라'

무궁화 '코일레스티스'

H. syriacus 'Coelestis'

홍단심계 품종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보랏빛 분홍색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심부의 붉은 단심은 크지 않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길게 발달한다. 꽃의 지름은 약 7~8cm 정도로 꽃잎은 완전히 활짝 피지 않고 컵 모양처럼 약간 안쪽을 향해 핀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5~9cm 정도 된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고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깊게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나무 생김새는 수관 폭이 좁게 자라며 가지는 하늘을 향해 직립한다. 키가 약 70cm 내외까지 자랄 정도로 작고 단정하게 자라며 가지도 짧고 굵은 편이라 작은 정원이나 화분용으로도 좋다. 1887년경 유럽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는 1995년경 영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Hibiscus syriacus 'Coelestis'
무궁화 '코일레스티스'

무궁화 '콩트드에몽'
H. syriacus 'Comte de Haimont'



Hibiscus syriacus 'Comte de Haimont'
 무궁화 '콩트드에몽'

아사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겹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수술이 모두 꽃잎으로 퇴화하여 속꽃잎이 되는데 바깥쪽에 자리잡는 기본 꽃잎이 속꽃잎에 비하여 훨씬 크고 뚜렷하다. 기본 꽃잎은 활짝 피고 꽃잎 사이는 서로 벌어진다. 꽃잎은 약 31개 정도 발생하며 꽃의 지름은 약 7~8cm 정도 된다. 꽃잎은 연분홍색을 띠는 흰색 바탕에 분홍색 아사달 무늬가 군데군데 발달한다. 꽃의 뒷면은 붉은색 무늬가 좀 더 짙은 편이며 꽃이 지면서 분홍빛이 점차 더 짙어진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8cm 정도이다. 잎끝은 길고 가늘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깊게 파여 갈라지며 심하게 물결친

다. 수형은 가지가 위를 향해 조밀하고 왕성하게 자란다. 1872년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는 1960~7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다이토쿠지기온마모리'
 (大徳寺祇園守; 대덕사지원수)
H. syriacus 'Daidokuji-gionmamori'



Hibiscus syriacus 'Daidokuji-gionmamori'
 무궁화 '다이토쿠지기온마모리'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수술 일부가 작은 속꽃잎으로 변하며 기본 꽃잎은 활짝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2cm 정도로 중앙부의 붉은 단심은 작은 편이며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도 길지 않다. 잎은 길쭉한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4cm, 잎자루는 약 0.6cm 정도 된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면서 둔하고 잎밑은 폭이 넓은 U

자 모양을 이룬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가지는 위를 향해 조밀하고 왕성하게 자란다.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부속식물원의 다치바나 요시시게(立花吉茂)가 무궁화 '다이토쿠지하나가사'의 자연방임수분(open pollination) 종자를 파종하여 얻은 실생(實生, seedling)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에 강원대학교에서 도입하였다. 품종명은 육성가가 어린 시절 지냈던 다이토쿠지(大徳寺; 대덕사)라는 사찰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무궁화 '다이토쿠지하나가사'
 (大徳寺花笠; 대덕사화립)
H. syriacus 'Daidokuji-hanagasa'



Hibiscus syriacus 'Daidokujihanagasa'
 무궁화 '다이토쿠지하나가사'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반겹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연

보랏빛을 띤 분홍색으로 수술 대부분이 속꽃잎으로 변하며 바깥쪽 기본 꽃잎은 꽃잎맥이 움푹 패여 뚜렷하고 활짝 핀다. 꽃잎 수는 31개 내외이고 속꽃잎은 비교적 가지런하게 발달한다. 꽃은 지름이 약 10cm 정도로 꽃 중앙부에 붉은 단심이 있지만 속꽃잎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도 길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가 약 6~7cm, 폭은 약 4cm, 잎자루는 약 0.8cm 정도 된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면서 둔하고 잎밑은 폭이 넓은 U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이 품종 역시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부속식물원의 다치바나 요시시게(立花吉茂)가 교토의 다이토쿠사(大徳寺; 대덕사)에서 자라는 무궁화 중에 선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95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다이토쿠지히토에'
 (大徳寺一重; 대덕사일중)
H. syriacus 'Daidokuji-hitoe'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50~6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연보랏빛을 띤 분홍색이며 꽃잎은 폭이 넓



Hibiscus syriacus 'Daidokujihitoe'
무궁화 '다이토쿠지히토에'

고 완전히 활짝 퍼지지 않아서 꽃잎끼리 서로 많이 겹친다. 꽃의 지름은 약 8~9cm 정도로 꽃 중앙의 단심은 크지 않고 꽃잎맥을 따라 단심선이 방사상으로 가늘고 길게 발달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cm, 폭은 약 4cm, 잎자루는 약 0.6cm 정도이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둥근 모양이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친다. 이 품종 역시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부속식물원의 다치바나 요시시게(立花吉茂)가 교토의 다이토쿠사(大徳寺; 대덕사)에서 자라는 무궁화 중에 선발하였으며, 1990년대 초 강원대학교가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다이토쿠지시로'
(大徳寺白; 대덕사백)

H. syriacus 'Daidokuji-shiro'

배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



Hibiscus syriacus 'Daidokujishiro'
무궁화 '다이토쿠지시로'

일 동안 피는 순백색의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잎은 서로 약간 겹치며 접시 모양으로 완전히 활짝 핀다. 꽃의 지름은 약 9~10cm 정도이며 기본 꽃잎은 보통 5장이지만 간혹 7장까지 나오거나 3장 내외의 작은 속꽃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5cm 정도이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약간 폭이 넓은 U자 모양이다. 잎 가장자리는 깊게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친다.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뻗하고 왕성하게 자란다. 이 품종 역시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부속식물원의 다치바나 요시시게(立花吉茂)가 교토의 다이토쿠사(大徳寺; 대덕사)에서 자라는 무궁화 중에 선발하였으며, 1970년대 초 서울대학교가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다이센기온마모리'
(大仙祇園守; 대선지원수)

H. syriacus 'Daisengionmamori'



Hibiscus syriacus 'Daisengionmamori'
무궁화 '다이센기온마모리'

일본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자라는 무궁화 중에 선발한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70~80일 동안 피는 반겹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수술 대부분이 속꽃잎으로 변하며 바깥쪽에 위치하는 기본 꽃잎은 크고 뚜렷하게 활짝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0cm 정도이며 속꽃잎은 약 48장 내외까지 발달한다. 꽃잎맥을 따라서 방사상으로 퍼진 붉은 단심선이 발달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5cm 정도 된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끝이 둥근 V자 모양이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고 약간 물결친다. 추위에 다소 약해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1985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가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부속식물원으로부터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단심'

H. syriacus 'Dansim'



Hibiscus syriacus 'Dansim'
무궁화 '단심'

1972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선발한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70일 동안 피는 흰색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잎은 서로 약간 겹치며 꽃의 지름은 9~10cm 정도 되고 속꽃잎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꽃 중앙의 붉은색 단심을 비롯하여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이 발달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8cm 정도이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심하게 물결치는 편이다. 나무 생김새는 좁게 직립하며 가지는 다소 적게 발달한다.



무궁화 '득환'
H. syriacus 'Deukhwan'



Hibiscus syriacus 'Deukhwan'
 무궁화 '득환'

대한민국 심경구 박사가 무궁화 '병화'에 무궁화 '태화'를 교배하여 2016년에 선발한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70~80



무궁화 '득환' 전체수형

일 동안 적자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잎은 완전히 활짝 벌어지지 않고 컵 모양으로 피어 서로 약간 겹친다. 꽃의 지름은 11~12cm 정도 되고 중앙에는 진붉은 단심이 발달한다. 잎은 약간 넓은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4~5cm 정도이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며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가지는 위를 향하여 왕성하게 자란다.

무궁화 '등랑'
H. syriacus 'Deunglang'



Hibiscus syriacus 'Deunglang'
 무궁화 '등랑'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철 연분홍빛 흰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꽃잎은 뒤집히거나 일그러지지 않는다. 꽃의 지름은 약 9cm 내외이며 꽃의 중앙에는 진홍색의 단심이 발달하고 단심선이 바깥쪽으로 연하게 퍼져 나

간다. 잎은 두껍고 털이 많으며 길이는 약 7cm, 폭은 약 5~6cm 정도이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은 둥글고 평평하다. 잎 가장자리는 길게 갈라지며 거치는 작고 예리하게 발달한다. 가지는 굵고 길이 생장이 빠르며 왕성하게 자란다.

무궁화 '다이애나'(백조)
H. syriacus 'Diana'



Hibiscus syriacus 'Diana'
 무궁화 '다이애나'(백조)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원예협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으며 영국 왕립원예협회에서 우수정원식물(RHS AGM Plants)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식물이다. 배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70~80일 동안 피는 순백색의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꽃잎의 폭이 넓어서 서로 많이 겹치며 평평하게 활짝 핀다. 꽃의 중앙부에는 단심이 없으며 지름



무궁화 '다이애나'(백조) 전체수형

은 12cm 정도 된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6~7cm, 폭은 4~5cm, 잎자루는 약 1cm 정도 된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면서 끝부분이 다소 둔하고 잎밑은 둥글다. 잎 가장자리는 얇게 파여 갈라지고 약간 물결치는 듯하다. 가지는 굵고 왕성하게 자란다. 미국 국립수목원의 도널드 이골프(Donald R. Egolf)가 무궁화 '스미노쿠라야에'에 무궁화 '윌리엄 알 스미스'를 교배하여 선발한 실생(實生, seedling)에 무궁화 '윌리엄 알 스미스'의 4배체 계통을 다시 교배하여 1988년에 선발한 3배체 품종이다. 품종명 '다이애나'는 꽃의 모양이 고대 그리스 여신 다이애나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졌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도입되었으며 1994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깨끗한 흰색을 상징하는 뜻으로 무궁화 '백조'라는 이름을 붙여 국내에 전해졌다.

무궁화 '동철'
H. syriacus 'Dongcheol'



Hibiscus syriacus 'Dongcheol'
무궁화 '동철'

대한민국 심경구 박사가 2003년 무궁화 '안동'에 무궁화 '삼천리'를 교배하여 2008년에 선발한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흰색 바탕에 진붉은 단심이 중앙부에 발달하고 꽃잎은 완전히 활짝 벌어지면서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0~11cm, 중앙부 단심의 지름은 약 1.4cm 내외이며 꽃잎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짧게 발달한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약 7~8cm, 폭은 약 5cm, 잎자루는 약 1.6cm 내외이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을 이룬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약하게 물결친다. 키가 약 2~6m까지 크게 자라는 교목성이며 가지는 위를 향해서 왕성하게 자란다. 주간 아래에 발달하는 잔가지들을 어릴 때부터 정리하여 큰 나무로 키우면 멋진 수형을 만들 수 있다.

무궁화 '도로시 크레인'
H. syriacus 'Dorothy Crane'



Hibiscus syriacus 'Dorothy Crane'
무궁화 '도로시 크레인'

1935년경에 영국의 노트컷츠 가든센터 (Notcutts Garden Centres Ltd.)에서 개발한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속꽃잎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꽃은 흰색 바탕에 진붉은 단심이 중앙부에 발달한다. 꽃은 완전히 피지 않아 종 모양으로 안을 향해서 피며 꽃잎의 폭도 좁아서 서로 떨어진다. 꽃의 지름은 약 9cm 정도이며 중앙부의 진붉은 단심은 작고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다소 길게 발달한다. 잎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7cm 정도이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깊게 파여 갈라지며 심하게 물결친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가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도원'
H. syriacus 'Dowon'



Hibiscus syriacus 'Dowon'
무궁화 '도원'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속꽃잎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흰색에 가까운 연분홍색 꽃잎 바탕에 진붉은 단심이 발달한다. 꽃의 지름은 7cm 정도로 꽃잎이 약간 겹치고 완전히 활짝 피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크기는 다른 무궁화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며 약간 옆으로 퍼지면서 자란다. 양지바르면서 물빠짐이 잘되는 작은 정원에 심으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무궁화 '에밀레'
H. syriacus 'Emille'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완전히 활짝 피지 않아서 종 모양에 가까우며 꽃

잎도 폭이 넓어 서로 많이 겹친다. 꽃의 지름은 약 11cm 내외이며 꽃잎은 얇은 편으로 연보라빛을 띠는 분홍색이다. 기본 꽃잎은 보통 5장이지만 간혹 6장이 때도 있으며 속꽃잎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꽃 중앙의 단심과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매우 크고 강하게 발달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4~5cm, 잎자루는 약 0.3cm 정도이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며 심하게 물결친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선발하였으며 품종명 '에밀레'는 신라 혜공왕 7년(771년)에 제작된 경주 성덕대왕신종인 에밀레종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Hibiscus syriacus 'Emille'
무궁화 '에밀레'

무궁화 '은하수'
H. syriacus 'Eunhasu'



Hibiscus syriacus 'Eunhasu'
 무궁화 '은하수'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꽃잎의 폭이 넓어 서로 많이 겹치고 완전히 퍼져 평평하게 활짝 핀다. 꽃의 지름은 약 6~7cm 내외로 작은 편이다. 꽃 중앙부 단심의 지름은 약 2cm이고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길고 뚜렷하게 발달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4~5cm, 잎자루는 약 1.2cm 정도이다.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아주 약하게 물결친다. 키가 약 70cm 내외로 작게 자라며 가지는 위를 향해 조밀하게 자란다. 키가 작아서 화단의 전

면부나 컨테이너용으로 키워도 좋다. 성균관대학교에서 1999년 무궁화 '코일레스티스'의 자연방임수분(open pollination) 종자를 파종하여 얻은 실생(實生, seedling) 중에 2004년 선발하였다. 품종명 '은하수'는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방정환 선생과 함께 동요 반달을 작사작곡한 윤극영 선생의 무궁화 정신운동에 바친 공적을 기리고자 명명되었다.

무궁화 '계월향'
H. syriacus 'Gyewolhyang'



Hibiscus syriacus 'Gyewolhyang'
 무궁화 '계월향'

1983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로부터 선발한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완전히 활짝 피지 않고 컵 모양처럼 약간 안을 향해 피며 꽃잎은 서로 약간 겹친다. 꽃의 지름은 8cm 내외로 꽃 중앙의 단심은 작

고 꽃잎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길게 발달한다. 잎은 긴 타원 모양으로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3~4cm, 잎자루는 약 0.6cm이다.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둥글다. 잎 가장자리는 약간 파여 갈라지며 약하게 물결친다. 키가 약 70cm까지 작게 자라기 때문에 화단의 전면부나 컨테이너용으로 키워도 좋다. 간혹 줄기와 잎에 그을음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궁화 '나츠조라' ('하공')
H. syriacus 'Natuzora' (夏空)



Hibiscus syriacus 'Natuzora' (夏空)
 무궁화 '나츠조라'('하공')

청단심계 품종으로 여름철 연한 보랏빛 파란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앙에는 진홍색의 단심 무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꽃의 지름은 약 12~13cm 정도이며 가지는 다소

가늘지만 길이 생장이 빠르고 수세가 강하다. 파란색을 테마로 하는 양지바른 공간에 식재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오래전 일본에서 무궁화 '파랑새'[*H. syriacus 'Oiseau Bleu'*(Blue Bird)]의 실생(實生, seedling) 중에 육성하여 19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참고문헌

-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 김종근(2024) 서울 매력식물 400. 서울특별시
-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호, 이정관(2018) 한국 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 천리포수목원(202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무궁화. 디자인포스트
-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

정선 봉양리 뽕나무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山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역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쟁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쌍둥이 뽕나무는, 키가 25m이고 가슴둘레가 2.5m 내외이며 수관 폭이 24m나 되는 노거목이다. 수령이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뽕나무는 고려조 말엽 관직에서 낙향한 인사가 기념으로 식재했다 한다. 이 뽕나무는 정선군청 청사를 출입하는 아스팔트 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장공간이 협소하고 주변 환경이 불량하다. 뽕나무의 성장 공간 확보가 급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도로 사정상, 토양을 개량하고 유공 관을 설치하여 공기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였다. 토양개량 작업은 자갈과 모래와 부엽토를 적정 비율로 혼합 처리하여 작업효과를 높였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줄기 부분에 외과수술을 시행하였다. 수목은 뿌리와 지상부의 생체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성장을 한다.

이 뽕나무는 엽량에 비하여 뿌리가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고사지와 쇠약지, 도장지 등을 제거하는 수관조절 작업을 시행하여 T/R 율을 조절하였다. 장치는 수관조절이나 토양개량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관리를 벗어나 기념물이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 관리함으로써 성장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뽕나무는 강원지방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



어 있으나 노거수의 품격이나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명품 노거수임을 감안 할 때 천연기념물로 승격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양잠에 대한 기록은 조선조 성종 2년(1471년)에 선잠단을 설치하고 왕비가 친히 친잠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근세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양잠 농업 덕분으로 농촌에서는 뽕나무식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지금은 오히려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보다는 색깔 있는 누에고치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다스리는 신약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눈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는 명주라는 한가지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는 다양한 용도를 개발

하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점이 다를 뿐, 뽕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변함이 없다. 누에를 지칭하는 잠잠 자는 하늘 벌레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니, 뽕나무를 먹고 자라는 누에가 인간 생활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효자로 소문난 젊은이가 있었다. 그 효자는 아버지의 병에 좋다는 약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해다 써 봤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 도사가 효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백 년 묵은 거북이를 고아 먹이면 아버의 병이 낫는다고 귀뜸을 했다. 그 길로 아들은 거북이를 찾아 바닷가를 헤매고 다녔으나 거북은커녕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옥황상제가 아들의 정성에 감복한 나머지 하늘나라에서 키우던 거북을 내려보냈다. 횡재를 한 아들이 거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나무 아래에 지계를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계에 얹힌 거북이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나를 잡아가지도 소용없네. 나는 옥황상제님이 기르는 천년 묵은 거북이라서 보통 불로는 살기지 않는다네. 자네가 나를 삶을 작정이거든 천년 묵은 뽕나무 장작이 필요할 터인데 그런 뽕나무가 어디 있다고.” 청년이 기대앉았던 고목이 대꾸를 했다.

“허허 이 답답한 놈 좀 보게, 콩과 보리도 분간을 못하는 숙맥 菽麥이구만, 네놈이 아무리 용을 써 봐야 내 몸에 붙은 가지 하나만 있으면 끝날 일인데 큰소리치기는.”

단잠을 자고 난 청년이 지계를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큰 가마솥에 거북을 안치고 참나무 장작을 아궁이가 미어터지도록 지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때도 거북이가 삶아지지 않았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면 그때마다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아들은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거북이를 짊어지고 오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거북이를 짊어지고 올 때 큰 나무 밑에서 쉬



었다면서?”

“그랬지요, 아버님.”

“그때 고목 나무가 한 말을 기억해 보거라.”

아들은 그때 서야 고목 나무와 거북이가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고목 나무를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뽕나무로부터 가지 하나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 까마득하게 높이 붙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그 나무로 장작을 만들어 거북을 삶았다. 그 나무가 천 년 묵은 뽕나무였다. 그 약을 먹은 아버지는 병이 완쾌되었다. 그래서 뽕나무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약으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처음엔 열 잎, 다음엔 한 바구니, 또 그다음엔 한 광주리, 누에가 자라면 자랄수록 몇 갑절 씩 뽕을 더 먹어 치우는지 알 수가 없다. 본래 무엇이든 남만큼 해내는 솜씨이고 보니 누에똥을 치는 것이며 치잠 稚蠶을 가리는 것이며 여러 해 먹이던 사람같이 손발이 익숙했다. 그만큼 재미도 나고 또 애가 쓰이고 하여 여러 날을 쉬지 못한지라 얼굴이 부석부석 붓고 눈엔 시뻘겋게 핏발까지 서게 되었다. 그런데 제 사령 第四齡 사흘째 되던 날부터 누에는 완전히 뽕을 굶게 되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는 그치지 않고 뽕잎 먹을 때를 놓친 누에는 대가리를 쳐들고 잠박 가로만 기어 나왔다.



뒤실 댁은 하루 종일 병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핏발 선 두 눈으로 누에만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어둠이 깃들자 뽕 도둑질을 나갔다.(.....) 옷은 젖어 몸에 휘감겨 붙고 머리는 흐트러져 물귀신처럼 된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온 뽕 보따리를 뒷마루에 내려놓기 바쁘게 우물가로 가서 손발을 씻었다. 흠친 뽕 보따리를 이고 정신없이 돌아오다 잃어버린 비녀를 찾느라고 길바닥을 맨손으로 휘젓다 보니 개똥을 주물렀다는 것이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뽕 보따리를 풀어 누에를 먹였다. 그러나 이미 굶을 대로 굶고 지칠 만큼 지친 누에는 뽕잎을 먹지 못했다. 뽕잎에 묻은 물기를 정성 들여 닦아내고 좋은 잎만 골라 누에 입에 대 주어도 누에는 고개를 내두를 뿐이다. 한쇠 할머니가 며느리의 하는 모양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울컥하는 마음으로 거들었다.

“오냐 이 짐승들이 부디 먹어라이, 부디부디 받아먹고 살아나거라. 조금씩 맛봐가면서 부디 살아나거라이.” 어린애 달래듯이 일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튿 날 아침 일찍이 한쇠 어머니는 끝내 뽕잎을 먹지 못하는 누에를 들어다 거름 속에 묻어 버렸다.」

가난에 찌든 한쇠 어미가 남의 뽕을 훔쳐 누에를 치는 모양을 그린 김동리의 「산화 山火」 중에서의 한 부분이다. 그만큼 뽕나무는 뽕잎을 먹고 사는 누에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귀중한 존재였다. 🌿

‘버들의 왕’ 왕버들과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버들 아가씨 이야기

시인·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버드나무는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못·냇가 등 물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종류만 해도 버들피리를 만들어 부는 갯버들, 조선 시대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다는 능수버들, 가지가 기늘어서 ‘세류(細柳)’라고도 하는 수양버들, 옷을 담은 상자인 고리짝을 만드는 고리버들, 꽃눈이 부푸는 것을 호랑이 눈에 비유한 호랑버들, ‘귀신 붙은 버드나무’라 불리는 왕버들 등 40여 종에 이른다.

버드나무는 봄바람이 불 때 가지를 나부끼는 모습이 아름답고, 추위에도 강해 가을에 늦게까지 푸른 잎을 달고 있어 옛날부터 많이 심었다.

버드나무는 껍질과 뿌리를 습진·방광염·부스럼·치통에 약으로 썼으며, 잎과 가지는 이뇨·진통·해열제로 이용했다. 또한 목재는 도마를 만들거나 약방에서 고약을 다지는 데 사용했다.

왕버들은 버드나무 종류 가운데 가장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다.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해 거의 물속에 잠긴 채 살아가지도 해 ‘하류(河柳)’라고도 불린다.

왕버들은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처럼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우뚝 서서 자란다. 수백 년을 살기 때문에 느티나무 못지않은 정자나무로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는 왕버들 고목이 수백 그루나 있고,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관리 왕버들(천연기념물 제193호),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종덕리 왕버들(천연기념물 제296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왕버들 숲(천연기념물 제403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털왕버들(천연기념물 제298호)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옛날부터 버들은 미인에 비유되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길고 윤이 나는 머리카락은 유발(柳髮), 예쁜 이마는 유미(柳眉), 예쁜 눈은 유안(柳眼), 가느다란 개미허리는 유요(柳腰)라고 했고, 모두 ‘버들류(柳)’자를 써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우리 역사 속에는 ‘버들’과 관련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유화(柳花)’였다. 유화의 아버지는 물의 신 하백인데, 냇가에 흔히 자라는 갯버들을 보고 말팔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이 되기 전에 정주를 지나다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 가게 되었다. 그 옆에는 우물가가 있었는데, 왕건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있는 아가씨에게 물을 청했다. 이 아가씨는 호족인 유천궁의 딸 유씨(柳氏)였다. 아가씨는 물 한 바가지를 뜨자마자 버들잎을 따서 물 위에 띄웠다. 그리고는 그 바가지를 왕건에게 건넸다. 왕건은 물을 마신 뒤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하기 쉽습니다.

버들잎을 불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왕건은 아가씨의 지혜에 감탄하여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이 아가씨가 바로 왕비가 되는 신혜왕후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장군으로 활약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이성계가 활을 쏠 채 사냥터를 돌아다니는데,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드나무 아래 우물이 있었다. 이성계는 우물가로 다가가 마침 물을 길는 아가씨에게 물을 청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물 한 바가지를 뜨더니 버들잎을 따서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다. 물바가지를 넘겨받은 이성계가 아가씨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에요?”

아가씨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물을 급히 드시다가 체하실까 봐 버들잎 하나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성계는 아가씨의 고운 마음씨에 반하여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마음씨만큼 얼굴도 고왔다. 이성계는 아가씨에게 반하여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신덕왕후다.

버드나무는 물가에 흔히 심어졌기 때문에 ‘이별의 나무’로 널리 알려졌다. 옛날 사람들이 연인과 헤어지는 장소가 버들이 우거진 강가 나루터였던 것이다. 연인들은 버들가지를 꺾어 주며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 여자들은 남자와 헤어질 때 말없이 버들가지를 건네었는데, 거기에는 ‘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마음도 버들가지처럼 흔들릴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거든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 🌿

노거수 산책 (10) 제주 산천단 곰솔군(群)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소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75-4번지 *산천단
제원 : 수고 19~22m, 수관 폭 8~12m, 가슴높이 둘레 3~6m
수령 : 400~600년 추정 *8개체 천연기념물 지정

제주 산천단(山川壇) 곰솔군(群) 산천단은 '산천제(山川祭) 모시는 제단'이란 의미로 산신제(山神祭)를 비롯한 제례의식이 행해지는 제단의 곰솔 노거수 군집이다. 예전엔 한라산 백록담에 있었으나 멀고 험한데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정해진 날에 봉행 못하거나 사고도 있어서 지금의 중산간 아래에 터를 잡았다. 산천단은 삼성혈, 제주목관아,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성소(聖所)이자 전통공간이다. 산천단 곰솔 8그루 중 최고 제원 개체(위 사진)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곰솔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야자나무 외에 눈이 내리는 자연을 가졌다. 곰솔은 녹나무과(科) 여러 나무들과 함께 제주도 기후환경 깃대종이다. 한라산에 주목과 구상나무는 있지만 소나무는 매우 드물어 내륙 식생과의 차별점이 뚜렷하다.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곰솔군은 제주도 지표종 노거수로서 전통공간에 군집으로 자리 잡아 생태·문화 가치가 매우 높다. 1:7로 마주보며 균제를 이루는 공간구조와 주풍(主風)에 줄기가 한 방향을 기울어져 육지 사람들 눈에 생경해 보인다.





제주 산천단 곰솔 앞 김재은 나무의사

생활권과 산림권 중간에 입목하여 미기후와 토심은 곰솔 노거수 생육에 호조건이며 사람의 입장에선 접근성이 좋아 제주도 노거수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곰솔 고유의 생육환경을 가진데다 전통공간에서 일찍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수관 영역 밖까지 빗물투수율 100%, 생태면적률이 높고 초본이 피복하여 지속가능한 생육환경이다. 육지에서는 드문 곰솔 노거수 수림지이고 그 군집 중 최고 제원의 개체는 육중한 몸통줄기와 밀동, 군더더기 없는 줄기와 가지 뻗음새는 제주의 역사를 반추하게 하고 호연지기 기운까지 뽐뽐이다. 다만 600년 세월을 오롯이 무병장수 하지 않았을 터, 비스듬히 기울어진 몸통줄기 속 공동이 드러났고 가지도 비교적 단출하다. 그 과정에 태풍·호우·폭설 같은 자연재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 극한성과 불규칙성을 띠는 기상에 외과처치와 함께 물리적 지지력을 확보하는 거치대를 설치하였다.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부후된 부분만 제거하여 살충·살균처리 후 방수·방부처리 하여 부후를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공동이 노출되어 관리가 용이하나 햇빛에 의한 열화로 이격이 생겨 수분 침투가 가능하여 후관리가 요구된다. 산천단 곰솔군은 공동을 노출 시켜 그 상부와 하부에 강재 파이프를 연결하여 다발로 묶어 고정함으로써 바람과 내·외부 압력에 의한 파절을 방지하고 촘촘한 철망으로 마감하여 야생동물이나 해충의 침입을 막는 장치를 하였고, 지상부 전체를 지탱하기 위해 철재 빔으로 이중 삼중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는 안전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천연기념물 미관과는 동떨어져 아쉬움은 남는데, 노거수 안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경관 이질감이 덜한 자재 개발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소속 나무의사 김재은 🌲

신규회원사 (2025.04-06)

지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경기	주식회사 아다람조경	이홍주	041-672-6655 010-9198-078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4길 33-12, 101호
경기	누리농원	정구열	010-5301-1904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53번길 26
충북	주식회사 관성	조규혁	043-836-3351 010-5462-7847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방축길 34
경남중부	태림농원	김철환	010-4565-4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15, 롯데캐슬스타 103동 4303호
충북	청남대 산림농원	이승규	010-5491-60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상장2길 20-9
서울	주식회사 청무조경	김영미	02-2157-4755 010-7363-47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1413호
서울	주식회사 에스엠녹화	김학성	02-6406-2225 010-8606-92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오피스텔트레벨 405호
서울	주식회사 희담	안성만	02-409-8672 010-4710-4378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원광빌딩 402호
서울	진랜드 엔지니어링	최종오	02-2628-5680 010-5203-30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011호
부산	한조경	김동규	010-9346-8000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82
부산	한수목원	김민규	010-9324-3000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762
강원	칠자화실생 종묘농원	김덕순	010-5398-70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08번길 19-1, 1층

회원사변경 (2025.04-06)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근목농원	최순호	주소수정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우산보길8
제이에이치조경 주식회사	장학수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 23-1, 운안동 현대아파트 상가동 2층 5호
푸른환경개발	김봉식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20, 우미리아파트 505동 705호
(주)신원조경	신병철	주소변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로 74-6
(주)자연조경	조영래	주소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2길 38
건국조경	하회승	주소변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6, 2층 216호 (이안두드림기흥역)
푸른농원	오창균	주소변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길 24, 2층
(주)삼지엘앤씨	지문철	상호,일반전화,팩스변경	상호:(주)삼지조경산업→(주)삼지엘앤씨, 일반전화:032-523-5537, 팩스:032-523-5539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끈,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품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장학기금 기탁 안내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회원자녀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운영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기금 기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간 기탁구좌 : 1구좌당 일백만원
- 기탁 약정기간 : 5년
- 기탁금 입금처 : (농협) 355-0060-5187-33 한국조경수협회



창조적 친환경 조성, 한국조경수협회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는 창조적 친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경영을 현대화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1. 임업정책자금(조경수생산자금)을 해당 산림조합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2. 조경수생산 및 녹화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3. 산림소득사업공모(조경수컨테이너 재배)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신청서를 대행 작성해 드립니다.
4. 한해 대비 조경수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정시설사업 국고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조경수 최신 생산기술과 관리에 대한 최신정보를 협회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조경수 가격, 공사품셈, 회원등단이 게재된 조경수목정보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7. 협회 홈페이지 '조경수 매물정보코너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등)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최신 조경수 생산기술 및 관련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선진지 시찰, 기술세미나 등 협회주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조건 : 조경수를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문의처 :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조경수 직거래 안내

- ▶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www.klta.or.kr)에서는 조경수 매물, 매입의 직거래를 할수있습니다.
- ▶ 이용료 납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시간에 구매없이 매물을 올릴 수 있고, 사진이 공개되어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분은 협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추천매물 농장	조경수 사진매물 급매물, 목목매물	조경수 매입
이용료 연 30만원 (홈페이지제작시 별도비용발생)	연 7만원 6개월 5만원	무료

한국조경수협회 홈페이지



코코피트, 피트모스 전문업체 (주)김스트레이드

뿌리 발육과 작물 생육이 탁월한 원재료만 사용

원재료는 해외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료 채취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간간하게 검수 한 후 수입·공급합니다.



조경수 전용 상토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를 사용
- ✓ 입자가 굵고 분진이 적은 피트모스를 원료로 사용
- ✓ 입자가 굵고 단단한 펄라이트를 원료로 사용
- ✓ 우수한 통기성과 배수성을 오래 유지함
- ✓ 균일한 성분 조성과 배합으로 빠르고 안전한 포트 재배에 적합



오픈탑 30cm



직경 70mm 부직포



직경 100mm +6인치 포트

코코피트 오픈탑

- ✓ UV 처리된 포장으로 별도의 포트(컨테이너)가 필요없음
- ✓ 약 5배로 압축된 건조상태의 블록형 제품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25cm 이하 규격)
- ✓ 염류가 제거된 고품질 코코칩 함유(30cm 이상 규격)
- ✓ 공급 규격 : 15cm, 20cm, 25cm, 30cm

코코 펠릿

- ✓ 포트 없이 양묘 재배 가능
- ✓ 이식할 때 상토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아 편리
- ✓ 부직포 유무 선택 가능
-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제품
- ✓ 공급 규격 : 지름 40mm, 지름 50mm, 지름 70mm